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늘푸른사랑방 공동체생활이 16일(일), 17일(월)에 사랑방공동체에서 있습니다.
- 멧쟁이학교 입학식이 23일(일), 오후 5시에 사랑방공동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임시회의가 오후 2시에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사랑방공동체 정기 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모입니다.
- 성서일기 진도가 이번 주 창세기를 마치고 마태복음으로 바뀝니다.
- 지난 월요일 밝은누리 최철호 목사 외 7명의 지도자들이 저희 공동체를 방문하셨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무림사랑방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헌(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7 호

2025년 2월 1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얼마 전 너무나 고대하던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린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전이었습니다.

고대한 까닭은 빈센트 반 고흐가 직접 그린 유명한 유화들을 비롯하여 드로잉, 판화까지 시기별로 다양한 작품들을 원화로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전시회를 가기 전 빈센트 반 고흐와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서 화가를 넘어 기독교인이자 전도자요, 순례자를 자처한 반 고흐에 대해 알게 되어 더욱 전시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반 고흐는 벨기에의 탄광촌에서 그들의 비참한 삶을 그냥 볼 수 없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그들과 같은 처지로 살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 교회에서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결국 파면되어 더 이상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 고흐의 동생이자 그림을 파는 화상이었던 테오는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말로 반 고흐를 화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반 고흐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림 속에 담아내려 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반 고흐는 성화를 많이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징적인 것을 통해 신앙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지요.

반 고흐의 성화를 보기 너무 어려운데 이번 전시에는 그 성화가 전시되고 있어 더욱 소중한 전시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고뇌하는 노인: 영원의 문 앞에서> 등 기독교적 주제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 참 동안 발길을 잡아 두고, 끝내 눈물을 흘리게 만든 작품이 있었는데 그 것은 바로 <씨 뿌리는 사람> 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파랑과 보라색이 섞인 밀밭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 뒤로 강렬한 노란 빛을 내며 떠오르는 태양
선교와 섬김

이 있는 밝은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린 것은 이 그림을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기 때문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조울증으로 무척이나 고생한 사람입니다. 우울증이 심할 때는 물감을 먹거나 유화제를 마실 정도로 재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씨를 뿌리는 사람을 그릴 때 이토록 씩씩하고 힘찬 모습으로 그렸다니.. 씨를 뿌리며 밀이 잘 자라리라는 희망에 사로잡힌 농부의 모습에서 믿는 자들, 복음의 씨앗을 담당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시 126:6)

일반적으로 씨를 뿌릴 때 울면서 뿌린다는 이 시편의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 고흐는 씨를 뿌리는 자가 우는 것이 아리라고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눈에도 알아차릴 수 있는데 농부가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뒤에 있는 노오랄게 빛나는 태양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분이 뒤에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림의 정 중앙에 이 태양은 찬란한 빛을 내며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면서 슬퍼하며 억지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이런 점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반 고흐는 <씨 뿌리는 사람>를 통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기쁨으로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니, 씨를 뿌리는 자여. 기뻐하십시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94, 294 / 438
기도 : 이재신 집사
성경 : 창세기 43장
제목 :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집트 재방문

1-10 이집트 재방문 사유

해석: 전체 상황을 보고 안전을 책임지며 다녀 오겠다는 유다는 공동체를 지키려했다.

적용: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자.

11-4 이스라엘(야곱)의 허락

해석: 이스라엘(야곱)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적용: 이스라엘(야곱)의 삶을 실천하자.

잘 대접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의탁)

15-34 요셉의 식사 초대

해석: 공과 사를 구별하는 요셉은 지혜있는 사람이었다.

적용: 지혜있는 사람이 되자.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자.

감사한 마음

안녕하세요. 늘푸른사랑방 진시우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멋쟁이학교를 졸업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1학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걱정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쟁이학교를 졸업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는데, 마침 주보 글을 쓸 기회가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먼저 저의 가족이 되어주신 모든 선생님과 공동체 식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어른들을 만나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통해서 저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우고 성장한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맞춰가는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함께 웃고 때로는 어려움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과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것에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저의 선택을 존중해주시고, 앞뒤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던 엄마아빠, 항상 기도해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동생에게 감사합니다. 저와 학교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방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목적을 깨닫고, 앞으로의 목표를 세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배움을 이어가겠지만, 공동체학교에서의 시간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배움은 앞으로 나아가는 저에게 깊고 튼튼한 뿌리가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20 : 7-8,9b
20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88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히브리서 3 : 1-6 설교자
물이 바다 덮음 같이(143) 따뜻한사랑방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14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10(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이충환 최연우 / 봉헌위원 : 이윤순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도를 부르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공식적인 초대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 초대 된 것을 말합니다. 이 초대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다스림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해의 시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유대교는 로마의 법 아래에서 인정되어 보호를 받으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쉬운 길처럼 보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불안과 의심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충환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지난 주일 졸업식으로 졸업생이 된 룩이와 이든이는 이번 한 주도 꾸러기에서 생활했습니다.

생일을 맞은 룩이를 축하해 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키가 쑥 자란 룩이에게 몸으로 선물하기는 쉽지 않아서 이든이랑 아름이가 만든 꽃가마는 출발하기도 전에 끊어져 다시 만들어야했지만 다시 손목을 맞잡아 만든 꽃가마는 자연 예배당 한 바퀴를 잘 버텨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안아주고 이불썰매도 태워주고 룩이를 위해 춤도 추었습니다. 빠짐없이 오신 어머니들도 날으는 양탄자를 태워 주셨습니다.

정월대보름에 대한 책을 보고 윷놀이도 하고 아름이가 챙겨온 땅콩도 껍질을 까서 먹어보았습니다.

의정부과학도서관 어린이과학체험실이랑 천문대에 다녀왔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어서 천체망원경으로 태양을 보지는 못해 아쉬웠습니다. 다음날 꾸러기에서 큰 불력을 가지고 노는데 우주정거장에 있던 것들을 만들고 빅뱅이랑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놀이를 만들어 갑니다. 어리기도 하고 설명이 충분했던 것도 아니어서 옆에서 지켜 보다가 살짝살짝 끼어들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지난주일 오후 3시에 제 19회 사랑방공동체연합졸업식이 있었고, 이 시간에 어린이학교는 21기 졸업생을 9명 배출하였습니다. 그 동안 어린이학교에서 동고동락했던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린이학교 졸업생답게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계속 응원합니다. 특히 이 날 졸업식에서 박운아 어린이는 부담과 떨림을 떨치고 송사를 멋지게 소화해서 졸업생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재학생들은 봄방학에 들어가고 졸업식도 끝낸 지난주부터 어린이

배움과 가르침

학교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 이전'인데요. 기존 도서관의 책과 책장들을 동그라미로 이전하기 위해 동그라미 정리와 기존 도서관 정리를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사들은 물론이고 공동체 식구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데, 특히 멋쟁이 졸업생이자 어린이 동문인 정이안, 화진의 늘푸른의 활약이 컸습니다. 높은 곳에 해야 하는 도배며 페인트칠, 무거운 물건 옮기기 등, 이 두 친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만큼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해주었습니다.

2월 15일 오후 2시에는 새학년 첫 공식 일정인 전체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학부모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모임에서 올 한 해 어린이학교의 일정과 수업 등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올해 함께 할 부모님들이 모인 자리가 따뜻하면서도 활력이 있어서 첫 단추가 잘 꿰어진 기분입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쌓여있던 눈과 고드름이 녹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는 냉기뿐만이 아니라 멋쟁이들의 마음도 함께 녹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던 사랑방공동체 연합졸업식에서는 졸업생들의 새 출발에 박수를 치며, 서로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 주간 같이 보내며 대화와 마음의 준비들을 많이 했기 때문 일까요? 드물게도 눈물이 적은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앞으로의 좋은 예비하심이 있을 것을 믿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멋쟁이 동문이 된 졸업생들은, 바로 첫 주만에 봄 학기를 지내는 재학생들을 위해 야식을 가져다주는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정말 멋있고 또 맛있었지요.

남아있는 멋쟁이들은 마저 봄 학기를 마무리하고 일주일간의 봄방학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입학 및 개강식입니다. 함께 살아갈 새인연들을 기다리며, 선생님과 선배들은 여러모로 준비를 다져갑니다. 한 주간 잘 준비해서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 교사 : 이어진 >

사랑방카페

사랑방카페는 주일오후에 잠깐 엽니다.

자연예배당 한켠에 놓여 있고 마실 것으로는 커피, 초코, 차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카페는 공동식사 후에 마시라고 준비된 것으로 사랑방 식구들은 누구나 마실 수 있습니다.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당연히 환영하고요.

수년 전에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가 풀리면서 오랜만에 대면 예배로 반가운 얼굴들을 보았었지요. 그 때쯤이었나 주일에 예배마치고 나면 공동주택 앞에 마실 것들이 있었어요. 임상희 권사님, 백성복 집사님이 웃는 얼굴로 나눠주셔서 어찌나 반갑고 좋던지~ 저희는 편하게 교회마당에서 야외카페에 온 기분으로 주일오후를 보냈습니다. 사랑방카페는 그렇게 애써주신 분들 덕분에 편하게들 마시던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추워진 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자연예배당으로 옮겨져서 열고 있습니다.

누군가 넉넉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또 누군가는 그것을 이어가고 그것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랑방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 싶습니다.

소속된 위원회도 없고 저절로 생겨진 코너이니 말입니다.

시작부터 넉넉한 마음으로 준비해 온 분들 덕분인지 지금까지도 이분 저분이 그때 그 때 마실 것들은 제공해 주셔서 모자람이 없이 잘 열고 있습니다.

마신 컵은 각자 알아서 설거지를 하니 좋고요. 개인 컵을 가져오시면 더 좋겠지요. 공동식사는 맛있게 차는 기분 좋게 이야기는 즐겁게 하는 사랑방오후의 모습이 좋습니다.

그루티기사랑방 정혜정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370장, 420장

성 경 : 히브리서 3장

말 씬 :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평화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 회담이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꿈이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이병욱 목사님과 청년들이 함께 이루는 공동체 운동이 힘을 낼 수 있고, 도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의 사역이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건강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잘 회복되고,

주일에 있을 공동체 운영위원회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주중에 생활공동체 전체모임을 하면서 2월에 생일을 맞은 식구들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어린이학교 선생님들이 졸업여행에서 사온 다과를 나누면서 소중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25년에 해야 할 일들을 나누면서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는 식구들이 있어 모두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매일 매일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식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